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한정호

# MB 정부와 정체성

6월 말 대통령의 중도론 선언 이후 MB 정부의 정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도론이란 극좌도 안 되고 극우도 안 된다는 의미의 매우 타협적이고도 실용적인 노선이다. 합리적이고 민생 우선적이면 되는 것이지 정부정책에는 좌도 우도 없다는 설명이다. 역시 며칠 뒤 청와대는 '중도실용론'으로, 다시 '중도강화론'으로 보다 구체적인 이름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고육지책이다. 진보와 보수세력들의 원색적인 요구와 갈등 사이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다. 안보위협과 경제불황, 미래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중도론은 매우 불안정한 노선이며 어필하지 못하는 노선이다. 나의 중도와 너의 중도가 다르며 중도노선에 바탕해서는 미래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간 MB 정권이 탄생한 이후 표방해온 정책노선용어들을 보면 유사한 점이 있다. 실용정부, 현장확인, 소통, 중도노선, 실리외교… 좋은 말들이기는 하나 MB정권다움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없다. 집권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숨김없이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논쟁과 정치를 싫어하며 편 갈라 싸우기 싫어하며 돈 안 되는 이념적, 혹은 가치관적 고민에 빠지기를 싫어한다.

이 대통령은 그저 한없이 일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한다.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지휘하고 빛나는 실적을 올리고 싶어한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여러 수단을 사용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다. 통치의 이념이나 가치관, 철학, 역사관과 같은 추상적인 리더십 개념에는 별 흥미가 없어 보인다. 그는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표를 모으는 정치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

이러한 엘리트 CEO 대통령의 약점은 바로 정권정체성의 결여로 나타나기 쉽다. 잘은 모르지만 이번 중도론의 표방은 이러한 자신의 정치 스타일이 추궁받자 "굳이 색깔을 밝히라고 한다면 나는 중도론 쯤으로 해놓지"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닌가 싶다.

왜 정권은 확실한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가? 그때그때 좋은 정책만 실현하면 되지 굳이 정체성을 밝혀야 하는가? 결론을 말한다면 밝혀야 한다. 아니 밝히지는 않더라도 나타내야 한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교, 안보·통일·경제·사회·문화·복지의 정책들은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중심축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파워를 발휘하며 예측이 가능하다. 확실한 비전이란 정체성의 결정체이다. 이것이 좌파를 이롭게 하건 우파를 이롭게 하건 정책의 방향은 뚜렷한 정체성 속에서 수렴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명분과 가치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설명할 수 있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힘이 바로 정체성 (identity)이다. 좋은 정체성은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을 더 편하게 하며 더 당당하게 만든다. 그들의 잠재력을 통제하지 않고 해방시킨다. 좋은 정체성은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며 양분선상에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흔히 불붙는 좌우파의 노선 논쟁은 물론 중도론도 전형적인 양분론에 바탕한 원시적인 정권 정체성 논쟁이다. 여기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심리학으로 보면 정체성이란 통합적인 자기표현으로 자기 발전은 물론 남들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다. 정체성 심리학의 대가인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은 사람이 자기 정체성(self-identity)을 가지지 못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불안과 좌절, 대인관계 갈등에 시달린다고 한다. 자기가 스스로를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암묵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치관과 의지, 가능성 극대화의 문제가 결부된다. 모든 조직체도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하며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권에 있어 이 정체성 문제는 바로 리더-대통령의 문제로 직결된다. 정권 정체성의 정점에는 최후의 책임자,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할 일은 바로 모든 정책들이 자신의 몸 전체에 자리 잡은 정체성에 맞추어 돌아가며, 궤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의사결정, 대화, 행사 모든 것이 다 정체성 발현의 일환이다. 이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어떤 정권 정체성을 창조해야 하는가?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답을 찾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우선 본인의 개인적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의 물음에 스스로 새롭게 답하면 된다. 확실한 것은 "나는 중도에 서서 실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노련한 정치인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은 어떨까? 남은 3년 반의 임기는 더 이상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 청와대 인사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를 바라보는 국민은 허탈감에 빠졌다. 심각한 도덕적 흠결과 위장전입 등 하자투성이 인물이 어떻게 한 나라의 사정기관 총수 후보로 임명됐는지, 이런 사실을 그토록 모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내정 직후부터 스폰서 의혹과 강남의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 흐름, 위장전입, 부인의 명품 쇼핑과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 문제, 아들의 호화 결혼식 등 온갖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기는커녕 금방 드러날 거짓말까지 해 국민여론을 악화시켰다. 천 후보자는 처음부터 검찰총수로서 자질 부족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MB 정부 출범 초기부터 허술한 인사 검증으로 '강부자' '고소영' 등 각종 신조어를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그토록 곤욕을 치르고서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매번 인사 때마다 국민적 조롱을 받고, 국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으며 치르지 않아도 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사가 만사(萬事)라 했는데 구멍난 인사 시스템을 고수하는 한 사고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고 정권의 신뢰 회복은 물 건너간다. 인사 때마다 번번이 특정 지역, 특정 학교, 특정 종교가 거론되고 '형님 인사' 등과 같은 듣기에도 민망한 말이 나오는 것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친 서민 행보를 하고 중도 실용론을 외쳐도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 청와대는 천 후보자 낙마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개각 등에선 인사 검증 시스템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는 한편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나주 공동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나주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설 공공기관들의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17개 공공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의 이전 승인이 완료됐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는 10월께 부지매입에 나설 예정이어서 내년 중 청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나주 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최근 광주시·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혁신도시 건설촉진 위크숍'에서는 이전기관 대상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전 대상 임직원들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제고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나주~서울간 셔틀버스 운행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교통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 역시 혁신도시 활성화의 필수 조건이다. 교육여건이 열악할 경우 자녀를 수도권에 두고 나홀로 이주하는 임직원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광주지역은 최근 5년간 대학수능시험 1등급 비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4년제 대학진학률이 광역시 1위를 차지하는 등 두드러진 교육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우리 지역의 공교육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우수 인재유치를 위한 교육기관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주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내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된다. 여기에 남도의 멋과 문화, 풍부한 먹을 거리,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성원가 등 타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이전 대상 임직원들의 요구사항 중 실현 가능한 분야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주종대

## 여름철 냉방기에 우는 '눈'

날씨가 더워지면서 냉방기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 놓은 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눈의 건조를 부르고 있다.

눈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주의할 것은 강한 자외선. 하지만, 자외선 못지않게 실내에서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당한 냉방 기기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여름철 안과를 찾는 환자중 10%가량은 안구건조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환기가 잘되지 않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냉방기기들이 계속 가동되면서 우리의 눈이 점점 물기를 잃어가고 있다.

냉방기기를 장시간 틀어놓았을 경우 에어컨 바람이 눈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은 눈을 건조하게 하여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냉방이 잘되는 곳에서 눈이 뻑뻑해지거나 피로를 느낀다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 층의 균형이 깨져 생기는 증상으로, 눈물막이 빨리 말라 쉽게 건조해지는 질병이다. 심할 경우 흰자위에 염증이 생기는 결막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조한 계절에는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발생하고 컴퓨터나 콘택트 렌즈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에도 생기기 쉽다. 안구건조증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면서도, 심해지면 생활에 큰 불편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각막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평소 안구건조증세가 있는 사람은 에어컨 통풍구가 눈을 향하지 않도록 하고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어 눈의 건조함을 막는 게 좋다. 직장인의 경우 사무실에서 컴퓨터 사용시 50분 작업 후 5~10분 정도 휴식을 취해주며, 컴퓨터 화면의 높이를 눈보다 10~20㎝ 아래로 낮춰 눈이 노출되는 면적을 줄인다. 또 주변환경을 습하게 유지하거나 뜨거운 수건으로 눈 부위를 찜질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밖에 안과에서는 눈물이 배출되는 구멍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막아 눈물을 보존하는 수술요법을 시행해 안구건조증을 치료하고 있다.

한편, 여름철에는 유행성 각결막염도 주의해야 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아데노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기는 눈병이다. 유행성각결막염에 걸리면 갑자기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많이 나며, 눈꺼풀 속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눈을 비비게 된다.

보통 바이러스가 침입한 지 5~7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때로는 통증이 오거나 임파선이 부어 귀밑에 멍울이 생기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할 땐 피눈물이 나거나 염증막이 생기기도 한다.

결막염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전염력이 강해 온 식구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와 청결은 기본이다. 〈밝은안과21 원장〉

기 고

안기석

## '출산장려' 국정 최우선 과제로

통계청의 인구현황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005~2010년 한국의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13명으로 예측되어 선진국 평균 1.64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감소하지만 의료산업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여 년 이상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 5월 18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005년 9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출산율을 끌어올릴 출산장려책이 들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벗고 나섰다. 줄어드는 인구와 급격한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과 재가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힘겨운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에서 지원받는 지원금도 천차만별이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셋째아를 낳을 경우 출산축하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받는가 하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 주민은 출산축하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

혜택은 어디에 사느냐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받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출산장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정해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국비로 지원해야한다. 20년 이상 계속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증가하여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임신축하금과 출산축하금, 보육료와 재가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자치구에서도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과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여건상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젠 '낳기만 하면 정부에서 키워주겠다'는 의지로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프랑스처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정의 역량을 쏟아 국비를 투입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종교계, 경제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워 부강하고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 노인복지과장〉

無等鼓

## 집단 지성

모스 전신기는 새뮤얼 모스(1791~1872)라는 미국의 화가가 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점(·)과 장점(-)으로 알파벳 철자를 표기하는 '모스 부호'를 전선을 통해 보내 먼 곳에 메시지를 전하는 이 장치는 인류 통신사의 신기원으로, 1876년 전화가 나올때까지 30여년간 초고속 통신수단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전신기는 모스 혼자 만든것은 아니다. 물리학자 조지프 헨리의 병렬 개념, 화학교수 레너드 게일의 전자석 설계, 알프레드 베일의 점과 선을 조합한 숫자신호 방식 등이 결합된 '집단지성'의 소산이다.

다수가 협력하거나 경쟁하면서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 즉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전신기를 발명했다고 한다. 비행기, 전구 등 대부분의 세계적인 발명품도 한 명의 천재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는 집단지성에 의해 탄생했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 刊 '제품혁신의 숨겨진 원동력 : 집단지성〉

집단지성의 힘은 제품혁신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물론 변혁기나 위기 때마다 한 사회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파워를 발휘해왔다.

수 천명의 네티즌이 만드는 온라인 사전 '위키디피아'의 정확도는 240년 역사의 브리태니커에 버금가고, 정보량은 10배를 넘어섰다. 젊은 과학도들이 모인 인터넷 사이트 '브릭'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기'를 파헤쳤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촛불 시민'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과 연대로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광주는 요즘 위기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에 열을 올리고 있는 판에 지역성장의 발판이 될 문화전당 건립은 도청별관 철거 논란으로 지진부진 하다. 불황은 깊어가는데 지역경제의 주축인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등엔 파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할 때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 주행중 '에어컨 가동' 환경오염·연료 소모율 높아

요즘 날씨가 더워져 차량 에어컨을 많이 켜고 다닌다. 얼마 전에는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에어컨을 춥도록 틀기에 덥지 않으니 적당히 틀자고 하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에어컨이 기름을 더 먹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겨울에 켜는 히터는 엔진으로 달궈진 열을 충전된 배터리의 전기로 팬을 돌려 차 안을 덥게 하기 때문에 기름소모가 전혀 없다. 하지만, 에어컨은 기계를 돌리기 위해 엔진의 힘을 빌려야 하므로 기름소모가 적잖은데 그걸 모르니 안타까웠다. 기름값이 연일 폭등하고 있는 요즘 무심코 켠 에어컨은 연료소비는 물론 환경오염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주행시 에어컨을 껐을 때와 최고 단수로 작동했을 때 오염물질은 49%, 연료는 18%나 더 소모 된다. 에어컨을 켜기보다 창문을 열고 달리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연을 줄이는데도 크게 도움 될 것이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 악필 늘어가는 학생들 '손 글씨' 교육 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글씨체가 나빠지고 있어 걱정이다. 우리 애들뿐 아니라 주변 또래들을 봐도 악필이 많다. 이는 PC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글씨를 쓰는 대신 자판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 본다. 학교에서 컴퓨터 글씨체를 요구하는 과제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 고학년이 되어도 글씨체는 엉망이고 고치기도 힘들어진다. 또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들은 정자(正字)의 필요성을 못 느낄 뿐더러 갈겨 쓴 악필이 많다.

학생들이 필기도구로 글을 써보는 것은 여러모로 학습에 도움이 된다. 또박또박 글자 한자마다 정성을 다하고 인내심도 길러진다. 또 시간을 들여 노력한 만큼 성취감도 맛본다. 올바른 심성형성에도 보탬이 된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

그러니 광주시 각 학교에서는 국어나 사회, 도덕 같은 과목들은 아이들의 정신수양과 고운 심성을 길러주는 차원에서 숙제의 일부만이라도 학생들이 직접 연필로 써서 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정미현·광주시 광산구 복룡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 | | | | | |
|---|---|---|---|---|---|
| 편집국안내 | | 사회2부 | 2200-692 | 경영지원국 | 2200-511 |
| 〈대표 FAX | 222-4918〉 | 〈FAX | 227-0118〉 | 〈FAX | 222-8005〉 |
| 편집부 | 2200-672 | 문화생활부 | 2200-661 | 광고마케팅국 | 2200-521 |
| 정치부 | 2200-634 | 여론매체부 | 2200-679 | 〈FAX | 227-9500〉 |
| 경제부 | 2200-641 | 체육팀 | 2200-663 | 디자인 | 2200-536 |
| 사회1부 | 2200-612 | 사진부 | 2200-691 | | |
| 〈FAX | 222-4267〉 | 조사부 | 2200-571 | | |

| | |
|---|---|
| 문화홍보국 | 2200-541 |
| 〈FAX | 222-0195〉 |
| 독자서비스국 | 2200-551 |
| 〈FAX | 227-9500〉 |
| 서울지사 | 02-773-9331 |
| 〈FAX |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